

이야포 미군폭격 희생자 유해발굴 시작

여수시, 남면 안도에서 개토식
과거사정리위 국비 예산 지원
감식 거쳐 세종시 추모의 집 안치

여수시가 한국전쟁 당시 남면 안도 이야포에서 발생한 미군폭격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을 시작한다.

시는 지난 27일 희생자 유해가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안도면 1010-1번지 일원에서 유해발굴의 시작을 알리고 역울하게 희생된 영령을 위로하는 개토제를 개최했다.

행사는 지역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추도사, 제례, 시삽 등의 순으로 엄숙하게 진행됐다.

이번 유해발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국비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되며, 시는 희생자 유해 발견 시 감식과 분석을 거쳐 보존 처



여수시가 지난 27일 한국전쟁 당시 남면 안도 이야포에서 발생한 미군폭격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을 위한 개토제를 개최했다. <여수시 제공>

리 후 세종시 추모의 집에 안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토제를 계기로 오랜 시간 기억 속에 묻혀 있던 민간인 희생의 진실이 드러나고 유가족의 아픔이 치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야포 미군폭격사건은 6·25전쟁 중인 1950년 8월 3일 남면 안도 인근 해상에서 제주도 로 향하던 피난선을 미군기가 기총사격해 승선자 250여 명 중 대다수가 사망한 현대사의 비극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

고흥군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준공... 복지거점 역할 기대

고흥읍 신계리에 3층 규모
작업장·훈련실·수어센터 등 갖춰

고흥군이 지난 28일 고흥군장애인종합복지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공영민 고흥군수를 비롯해 문금주 국회의원, 류제동 군의회 의장, 임흥민 전라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 등 각계 인사와 장애인 단체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준공을 축하했다.

고흥군장애인종합복지센터는 지역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든든한 출발점이자, 직업교육·훈련·일자리 지원 등 실질적인 서비스를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는 복지 거점이다.

총예산 41억원이 투입된 이 센터는 고흥읍 신계학림길 49-5 부지에 연면적 902.96㎡,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1층에는 장애인근로사업장(세탁실) ▲2층에는 직업훈련실과 사무실 ▲3층에는 고흥군농아인협회 사무실과 수어통역센터가 입주해 활동을 시작했다.



고흥군장애인종합복지센터 준공을 계기로, 공영민 군수는 기념사에서 "군수인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편"이라며,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과 체육활동에서도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인복지관과 반다비체육관 등과 같은 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센터가 장애인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당당한 삶을 응원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선부 주거환경 개선 봉사

취약계층 어르신 가정 방문
도배, 장판·타일 교체 등 지원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선부 봉사단이 지난 27일 봉강면 정자마을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의 대상은 화장실 타일이 떨어지고,

바닥 장판이 들떠 있는 등 전반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80대 어르신이 홀로 거주하고 있는 집이다.

이날 제선부 직원들은 주택 내부를 정리·정돈하고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등 환경 정비에 나섰다. 포스코 도배봉사단은 도배 및 장판 교체 작업을 통해 주거 환경 개선에 힘을 보탰다. 아울러 봉강면사무소 복지기동대는 화장실 리모델링과 현관 타일 보수를 지원했다.

봉사단의 지원을 받은 어르신은 "생활하기 불편했던 집을 고쳐주시고, 이동이 불편해 한동안 치우지 못했던 집 내부까지 깨끗하게 청소해주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김영희 봉강면장은 "지역의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따뜻한 마음으로 봉사에 참여해주신 포스코 제선부 직원들과 도배봉사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세심한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보성군, '전통차 만들기 체험관광' 지원

20인 이상 단체 대상 체험비 등

'녹차수도' 보성군이 오는 10월까지 '전통차(음식) 만들기 체험관광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1호 지정된 '보성 전통차 농업시스템'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전통차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한국차박물관·가막재다원 등 관내 22개 지정 체험장에서 진행되는 이 사업을 통해 방문객들은 직접 전통차(음식) 만들기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보성군은 20인 이상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차(음식) 만들기 체험비(1인당 2만 원) 또는 차량

임차료(거리별 차등, 40만~55만원) 중 하나를 택일 지원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전라남도 관광협회(061-285-0833)에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보성군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열린 제48회 보성다향대축제 기간에 체험 관광객 500여 명을 모집했으며, 오는 하반기에는 열선루축제(10월 예정)와 연계해 단체 관광객 유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군은 이를 통해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전통농업유산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을 적극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스릴 만점' 곡성군 대항강모험시설 개장

216m 출렁다리 8가지 특별코스

스릴 만점의 곡성군 대항강모험시설이 개장해 본격 운영되고 있다.

곡성군은 최근 죽곡면 강빛마을 앞 도로변 산책로를 정비하고, 교육장 및 편의시설을 갖추고서 이달부터 공식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항강모험시설은 케이블로 연결된 총길이 216m의 다리이며, 다리 중간에 인디애나-체스-원반브릿지 등 8가지의 특별코스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까지는 체험관광상품인 '곡성캘린저' 프

로그램 중 하나로 시범 운영돼 지역민과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출렁이는 케이블에 안전고리를 걸고 걸어가며 색다른 모험을 하고 하천 위를 횡단하는 체험시설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곡성을 찾은 많은 관광객이 도전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대항강을 가로질러 설치된 모험시설을 체험하다 보면 다리 아래로 눈부신 햇살을 머금고 흐르는 강물과 멀리 보이는 산속 강변의 여유가 넘치는 풍경에 잠시나마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는 해방감을 만끽할 수 있다. /곡성=박승규 기자 psk8210@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4km 구간을 장미로 꾸미는 아름다운 길 만들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화엄사 가는 길, 4km 구간 장미로 꾸민다

구례군 마산면의 '화엄사로 아름다운 길 만들기'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업의 화엄사로는 국도 19호선에서 천년고찰 화엄사까지 이어지는 약 4km 구간으로, 마산면 주민의 주요 통행로이자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로이다.

그동안 도로 환경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 미관을 해치고,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 등으로 인해 관광객들의 불편이 컸다. 이에 마산면은 올해 초부터 '화엄사로 아름다운 길 만들기'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사업 첫 단계인 4월에는 국도 19호선에서 '화엄가든'까지 잡풀·넝쿨 정비와 흉가시나무 식재, 5월에는 면사무소에서 '스테이 지리산아침' 구간에 장미를 새로 심었다.

6월에는 장미 보호를 위해 지주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로써 내년 이맘때에는 해당 구간이 붉은 장미꽃으로 장관을 이룰 전망이다.

올 하반기에는 '리치빌라'~'청마관' 사이에 금계국을 추가 식재하고, 무단투기 문제 해결을 위해 도로변 유휴지에 쓰레기 집하장을 설치해 적정 배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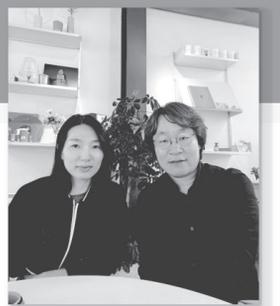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